

일본의 방과후 아동대책¹⁾

The Trends of Child After School Policy in Japan

최진희 일본 오사카시립대학 사회복지학 박사과정

1. 들어가는 말

일본사회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맞벌이 가정과 일하는 여성, 한부모 가정의 증가, 지역사회 변화, 학교 주5일제 도입(2002년도 도입) 등으로 인해 현재 방과후 아동대책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일본의 방과후 아동대책은 일과 자녀양육을 양립시키고자 하는 민간차원의 움직임에서 시작되었으나 저출산·고령화, 여성의 사회진출, 고도경제성장을 배경으로 한 맞벌이 가정 증가 등 경제·사회적인 요인들과 맞물리면서 아동양육지원 서비스의 하나로 확산되었다.

2000년대 중반까지 부모가 일하는 낮 시간에 빈집에서 있는 아이들에게 초점을 둔 방과후 아동대책이었지만 2007년에 다면적인 모습으로 움직여왔던 방과후 대책을 “방과후 아동플랜”

으로 개편, 통합시키고 있다.

일본의 방과후 아동대책이 어떠한 정책적 흐름 안에서 진행되었는가를 파악함과 동시에 최근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일본 방과후 아동대책의 추세에 따른 정책별 내용

필자는 일본의 방과후 아동대책을 시대별로 4기로 나누어 살펴본다. 방과후 아동대책에 관한 사업들의 연도별 현황은 [그림 1]과 같다.

1) 제1기 1960년대 이전 - 민간중심 태동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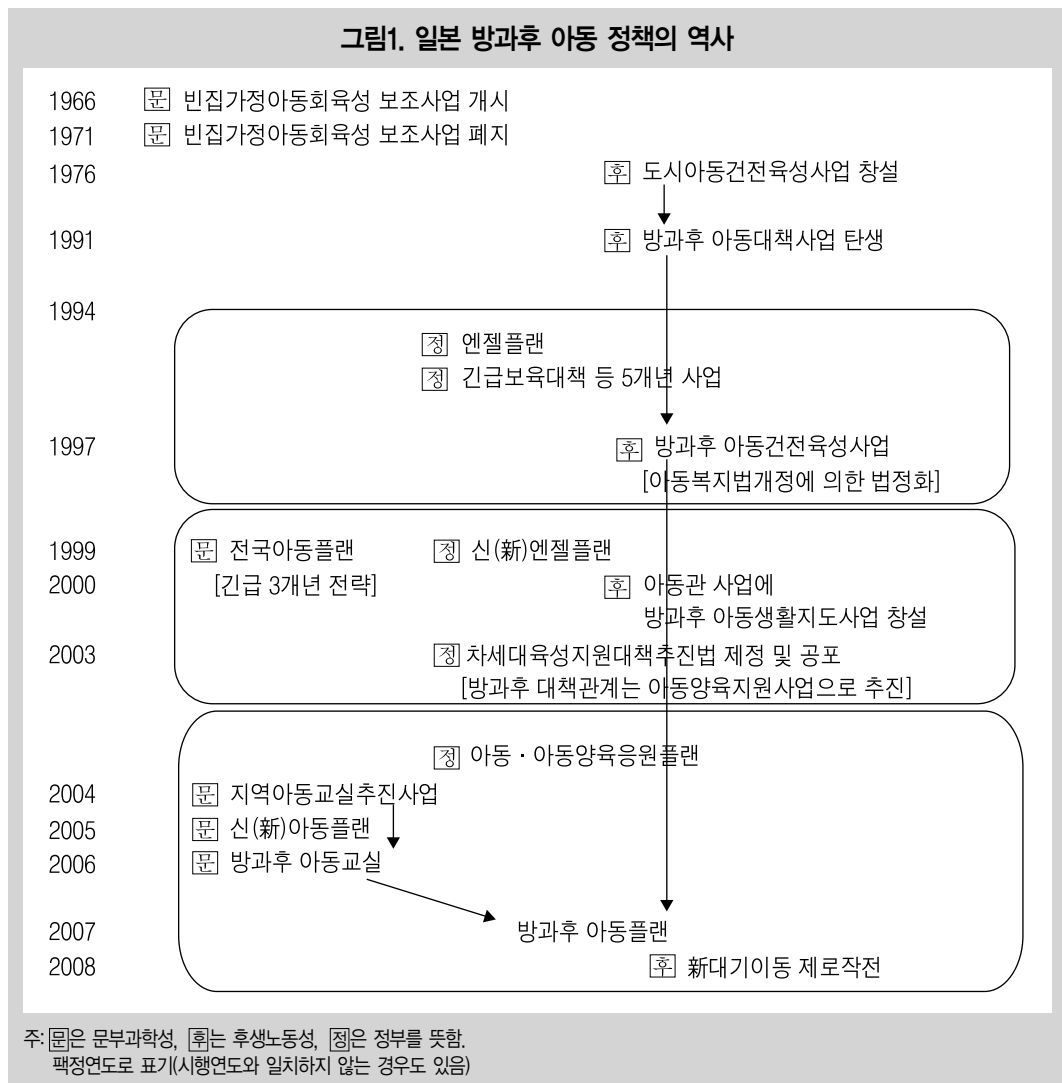
방과후 아이들에 대한 지원사업은 처음에 민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1904년

1) 본고는 '방과후 통합운영모델 및 전달체계에 관한 연구' - 김미숙·이향란·황진구·이주연·신어진·최진희 저, 아동복지교사 중앙지원센터·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9)의 일부분을 발췌한 원고임.

고베시 부인봉공회가 징병군인과 전사자 가족을 위한 아동보육으로 시작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세틀먼트(settlement)활동과 인보관 활동 중 '아동클럽' 등의 명칭으로 방과후 아이들에 대한 보육이 이루어졌다. 또 동경 니시타니(西谷) 후타바 어린이집(雙葉保育園)에서는 초등학교부를 만들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전쟁이후 사립보육원, 세틀먼트활동을 하는 아동관과 인보관에 의해 방과후 아이들에 대한 보육이 시작되었다. 일본 최초의 방과후 아동보육은 1948년에 오사카시의 이마가와 가쿠엔(今川學園)에서 발족되어 퍼지게 되었다. 한편 동경에서는 어린이집을 주 거점으로 퍼지게 되었는데 1962년 노동자클럽 보육소를 졸업한 아이

그림1. 일본 방과후 아동 정책의 역사



들의 부모들이 공동보육을 시작한 것이 동경에서는 최초였다. 그러면서 동경에서는 연합회의가 생기고 1963년 요코하마시(横浜市)는 빈집가정아동보호육성 모질학교를 지정하고 가와사키시(川崎市)는 1962년 민생국 소관으로 청소년회관에 생활클럽, 나라시(奈良市)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1965년 반비흡이라는 명칭으로 방과후 아이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등 전국 지방자치제로 퍼져나가게 되었다²⁾. 이렇듯 1960년대 중반까지는 지방자치제 별로 민간 중심의 방과후 아동대책의 움직임이 있었다.

2) 제2기 1960중반~80년대 - 방과후 아동대책 정책도입기

일본정부는 고도경제성장을 위한 주부들의 노동력 개발의 필요성과 아이들의 건전육성대책, 빈집가정아이들의 비행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방과후 아동시책이 이루어지게 된다.

일본의 방과후 아동대책의 첫 움직임은 현 문부과학성이 1966년부터 1971년까지 빈집가정 아동회육성 보조사업으로 실시했던 것이 있다. 또 1976년에는 후생성(현, 후생노동성) 도시아동건전육성사업이 국가보조의 방과후 아이들 대책사업으로 시작되었다.

3) 제3기 1990년대~2006년 - 방과후 아동대책 확충기(법정화기)

1990년대부터 방과후 아동에 대한 여러 가지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시기이며, 부모가 방과후 아이들을 돌보지 못하는 상황이 주 사항이 되면서 그에 대한 서비스가 확충되었다.

(1) 엔젤플랜(1994)의 방과후 아동대책

도시아동건전육성사업이 1991년에는 방과후 아동대책사업으로 창설되고 1994년 12월에 엔젤플랜이 책정되었다. 엔젤플랜에서는 이후 10년간 아동양육지원책의 기본방향과 중점시책을 정하고 통합적·계획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아동양육지원을 위한 시책의 기본적 방향에 따른 중점적으로 실시되는 시책들 중 “다양한 보육서비스의 충실”이라는 항목 안에 ‘방과 후 아동대책 충실’이 포함되었다. 낮 시간에 보호자가 없는 가정의 초등학교생(주로 1학년부터 3학년)을 대상으로 아동관, 아동센터, 사정에 따라 학교의 여유교실 등에서 건전육성을 위한 방과후 아동클럽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고 규정하였다.

(2) 긴급보육대책 등 5개년사업(1994)의 방과후 아동클럽

엔젤플랜이 나오고 난 이틀 후 1994년 12월 18일 긴급보육대책 등 5개년사업이 책정되었다. 엔젤플랜의 시책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1999년까지의 구체적인 목표치를 정하게 되었다. 긴급보육대책 등 5개년사업에서는 방과후 아동클럽은 1999년까지 9000개소 설치목표

2) 平田貴子(2007): わが國における學童保育の現狀に關する一考察, 川崎醫康短期大學紀要, No.27, p.48

가 설정되었다. 이것은 방과후 아동대책에 대해 일본이 처음으로 수치목표를 설정한 것이었다 (표 1 참조).

(3) 방과후 아동건전육성사업 - 법정화 (1997)

1997년 아동복지법의 일부개정이 이루어지면서 ‘방과후 아동건전육성사업’으로서 처음으로 방과후 아동정책이 아동복지법과 사회복지법에 규정되었다.

이 사업은 시정촌에 대해 이용촉진의 노력의무를 부가시켰고 실시주체는 시정촌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법인 그 외의 경우에도 인정하게 되었다. 실시주체에게는 상호 연계하여 이용자에 대한 상담, 지역사정에 맞는 지원에 노력해야 할 의무를 부가시키는 동시에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적절한 놀이와 생활 장소를 부여해야 하는 이용 서비스로 아동복지법 안에 규정되었다. 이 사업을 ‘방과후 아동클럽’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활동내용으로는 ①방과후 아이들의 건강관리, 안전확보, 정서안정, ②놀이 활동에 대한 의

욕과 태도형성, ③놀이를 통한 자주성, 사회성, 창조성을 기르는 것, ④방과후 아동의 놀이 활동상황을 파악하고 가정에 연락, ⑤가정과 지역에서의 놀이환경 만들기 지원, ⑥그 외 방과후 아동의 건전육성상 필요한 활동이다³⁾.

(4) 전국아동플랜 - 긴급3개년전략 (1999년도부터 2001년도)

문부과학성은 2002년도부터 학교 주5일제가 실시됨에 따라 1999년도부터 2001년도 3년간 지역에서 아이들을 기르는 환경을 정비하고 부모와 아이들에게 여러 체험활동의 기회와 정보를 제공, 여러 활동 지원, 상담을 하는 전국아동플랜 사업을 추진했다⁴⁾.

(5) 아동관 사업 - 방과후 아동생활지도사업 창설 (2000)

아동관(아동센터 포함)은 도시화와 핵가족화로 아이들이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 장소(놀이 장소)가 감소하고 아이들의 비행을 방지하기 위

표 1. 방과후 아동클럽 사업 정비목표

	긴급보육대책등 5개년사업		신엔젤플랜	
	1994년도 상황	1999년도까지 목표치	1999년도 상황	2004년도
방과후 아동클럽	4529개소	9000개소	9000개소	11500개소

주: 긴급보육대책 등 5개년사업과 신엔젤플랜의 방과후아동클럽사업 정비목표만 필자정리 작성

3) 후생노동성(1998.4.9) 『放課後兒童健全育成事業の實施について』各都道府県, 各指定都市・各中核市民生主管部局長宛 厚生省兒童家庭局育成環境課通知

4) 문부과학성 홈페이지 http://www.mext.go.jp/b_menu/hakusho/html/hpad199901/hpad199901_2_111.html

해 만들어진 아동복지시설(아동복지법 제40조)이다. 실내외형의 시설로 아이들의 건전한 놀이를 제공하고 그 심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그림 2]와 같이 4700개의 아동관이 있다(2007년도10월 현재).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이 안정된 방과후 시간을 위해 등록제로 매일 학교수업이 끝나면 직접 아동관으로 가서 아동클럽에 참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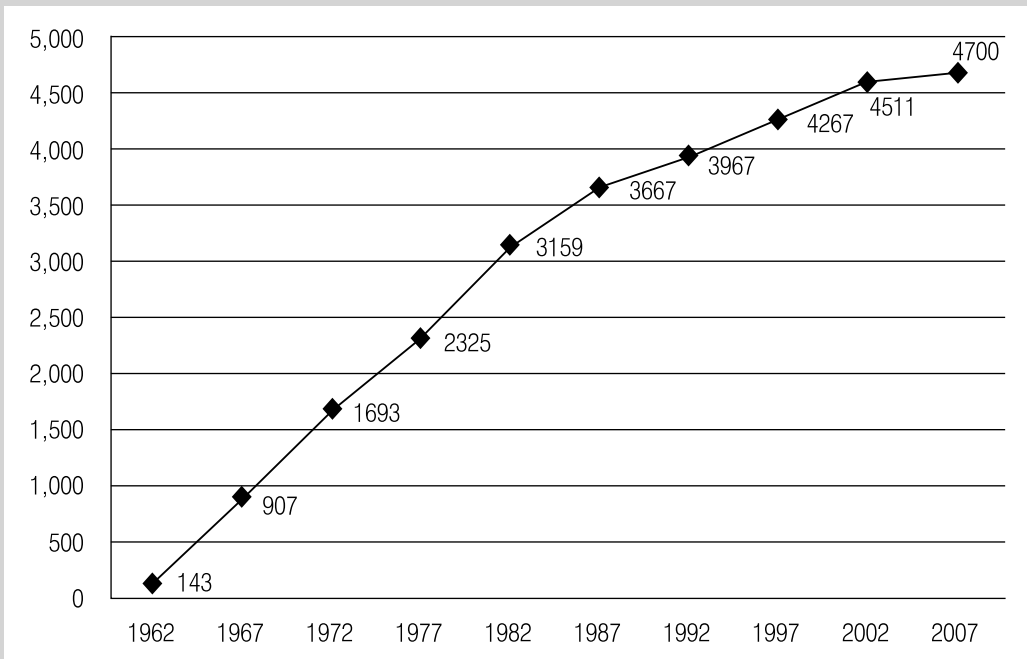
2000년 아동관 사업으로 방과후 아동생활지도사업이 창설되었다. 지역사회에서 아동건강육성을 위한 활동의 거점으로서 아동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어 ①중고등학생을 포

함한 연령의 아동들이 있을 수 있는 곳, ②지역의 아동양육가정에 대한 지원과 아동양육가정과 상호교류를 꾀하는 곳, ③아이들이 다른 연령아동과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곳이라는 시점을 추가시켰다⁵⁾.

(6) 신(新)엔젤플랜(2000)의 방과후 아동대책

大藏·文部·厚生·労働·建設·自治의 6대신이 합의하에 책정된 신엔젤플랜에서는 긴급보육대책 등 5개년사업 후 2002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 정비할 수치 목표를 설정했다. 신

그림 2. 일본 아동관 설치수 추이



출처: 후생노동성 각 년도별 사회복지시설 등 조사결과 자료 필자 재구성

5) 후생노동성(2001.3.13) 「兒童健全育成施策について-兒童館事業について-」 全國兒童福祉主管長會議資料

엔젤플랜의 주요내용 8항목 중 첫 번째 ‘(1)보육 서비스 등 아동양육지원서비스의 충실’에 관한 항목에서 ‘방과후 아동클럽 추진’이라는 형태로 구체적인 항목이 기재되었다. 또한 신엔젤플랜은 2004년까지 정비수치목표치를 정해 방과후 아동클럽은 5년간 2500개소로 증가시켜 11500개소로 계획을 세웠다.

(7) 아동·아동양육지원플랜(2004)의 방과후 아동대책

2003년 소자화사회대책기본법이 성립되고 2004년 소자화사회대책대강이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적인 시책의 지침이 되었다. 엔젤플랜과 신엔젤플랜 등을 이어가는 아동·아동양육지원플랜에 ‘방과후 아동클럽 추진’이 포함되었는데, 이후의 동향으로서 인원 확대의 운영방침과 서비스의 내용 수정도 진행되었다. 2008년까지 방과후 아동클럽을 17500개소 실시 목표가 설정되었다.

(8) 지역아동교실추진 사업(2004)

학교의 안전에 관한 심각한 사건⁶⁾들이 일어나고 청소년 문제행동의 심각성, 지역과 가정의 교육력 저하 등 긴급한 과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문부과학성은 ‘지역아동교실추진사업’을 실시했다. 지역사회 시

민들의 협력을 얻어 학교 등을 활용하여 아이들 활동거점을 확보하고 방과후와 주말 등 여러 활동, 지역주민과의 교류활동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9) 신(新)아동플랜(2005)

문부과학성은 전국아동플랜(1999년도부터 2001년도)의 실적을 바탕으로 관계성(省)의 협력을 얻어 계속적으로 아이들의 체험활동기회를 충실히 하는 등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책정되었다. 신아동플랜 안에는 지역아동교실추진사업을 보다 확충시키고자 했다⁷⁾.

(10) 방과후 아동교실추진사업(2006)

① 방과후 아동교실추진사업 목적

문부과학성의 방과후 아동교실추진사업은 2006년도까지 긴급3개년대책으로서 실시되었던 ‘지역아동교실추진사업’을 기반으로 하고 여러 가지 체험과 교류활동 등을 더하여 가정의 경제력 등에 관계없이 학습의욕이 있는 아동에게 학습기회 제공을 충실히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② 방과후 아동교실추진사업 내용

방과후 혹은 주말 등 초등학교의 여유로 남아 있는 교실을 활용하여 아이들이 안심하고 안전

6) 2001년 오카사교육대학 부속초등학교에서 무차별 살인사건(외부인 침입)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2004년 문부과학성은 ‘학교 안전 긴급 어필-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를 내놓고 2004년에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장소 만들기로서 지역아동교실추진사업을 시작했다. 이는 방과후 아동교실추진사업의 전신이 된다.

7) 문부과학성 홈페이지 자료 http://www.mext.go.jp/a_menu/shougai/week/h17jissshi/004.htm

하게 활동하는 거점을 만들고 지역주민들의 참여로 학습활동과 스포츠, 문화 예술활동, 지역주민과의 교류활동 등을 실시하여 아이들의 사회성, 자주성, 창조성 등 인간성 함양과 동시에 지역아동들과 어린이의 적극적인 교류로 지역커뮤니티를 만들어가기 위한 사업이다.

사업의 대상은 초등학생이지만 지역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유아나 아동의 일부를 제한하는 것은 없다. 비용부담은 사업실시경비에 대해 정부가 1/2, 도도부현 1/3, 시정촌 1/3 부담하는 보조사업이다(정령지정도시와 중핵시는 정부1/3, 시2/3)⁸⁾.

4) 제4기 2007년 이후 - 방과후 아동대책 성장기

(1) 방과후 아동플랜(2007) 책정의 배경

후생노동성은 방과후 아동대책을 30년정도 실시해왔고 1997년 아동복지법개정을 통해 ‘방과후 아동건전육성사업’으로 법정화 시켰다. 한편 문부과학성은 아이들과 관련된 심각한 사건이 연달아 발표되면서 청소년 문제행동의 심각화 및 지역사회와 가정의 양육력 저하 등 긴급과제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 위탁사업으로서 2004년도부터 3년 계획으로 안전하고 안심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아이들의 활동 거점 만들기 지원으로서 ‘지역아동교실추진사업’을 시작

했고 이에 이어 방과후 아동교실추진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렇듯 지금까지 후생노동성과 문부과학성이 각각 실시해온 방과후 아동대책사업을 이노구치(猪口) 당시 2006년 저출산 담당대신이 저출산 대책의 시점에서도 문부과학성과 후생노동성의 두 사업의 일원적 실시에 관한 제안이 이루어지면서 협의 하에 2006년 5월 9일 후생노동성과 문부과학성이 연계한 통합적인 방과후 대책사업으로 “방과후 아동플랜”을 창설하게 되었다⁹⁾. 방과후 아동대책의 수요가 급증했다는 점, 대기아동에 대한 조급한 조치, 조속한 아이들의 안전한 공간 확보, 방과후 아동클럽(방과후 아동건전육성사업)과 학교와의 연계강화라는 점이 방과후 아동플랜으로 일원화시키는 움직임이었다고 볼 수 있다.

(2) 방과후 아동 플랜¹⁰⁾ 기본 구성

① 방과후 아동플랜의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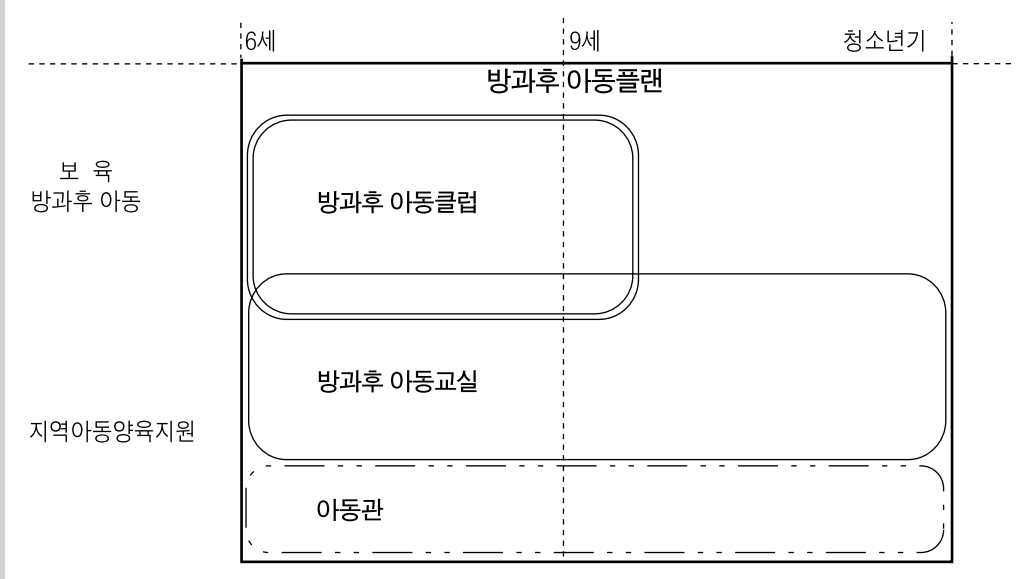
방과후 아동플랜이란, 시정촌이 책정한 사업계획과 동계획을 기본으로 한 방과후 대책사업(방과후 아동건전육성사업·방과후 아동교실추진사업)의 총칭이다. [그림 3] 방과후 아동관련 사업영역의 범위와 같이 방과후 아동플랜이라는 명칭 하에 각 사업들이 진행되는 것이다. 또한 <표 2>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각기 다른 내용의 두 사업을 연계적이며 통합적으로 추

8) 문부과학성 홈페이지 자료 http://www.mext.go.jp/a_menu/hyouka/kekka/08100102/011.htm

9) 竹田和彦(2009.2): 放課後子どもプラン策定の経緯とねらい, 『アフタースクール—放課後の子どもたちの居場所のいま』, 児童心理 63(3) (No.891) pp.118.

10) 문부과학성 생계학습정책국장·후생노동성고용균등아동가정국장연명 통지(2007.3) 『방과후 아동플랜』 추진에 관하여

그림 3. 방과후 아동관련 사업영역의 범위



주: 방과후 아동클럽은 방과후 아동건강육성사업이며, 방과후 아동교실은 방과후 아동교실추진사업을 의미함.
 출처: 후생노동성(2008.9.28) 『次世代育成支援のための新たな制度體系の具體的検討に向けて』
 저출산대책 특별부회 일부 자료 일부본 필자정리

진시키려는 것이다.

② 취지 및 목적

각 시정촌의 교육위원회가 주도하여 복지부 국과 연계를 피하고 원칙적으로 모든 초등학교 구에서 방과후 등 아동의 안전과 건전한 장소 만들기를 추진하여 『방과후 아동교실추진사업(문부과학성)』과 『방과후 아동건강육성사업(후생노동성)』을 일원화하며 연계하여 통합적인 방과후 대책(방과후 아동플랜)을 추진한다(구체적인 내용 비교는 표 2 참조).

③ 실시 주체 및 경비

사업계획 책정 주체는 시정촌이며 사업 실시

주체는 시정촌, 사회복지법인, 그 외 등이다.

일본정부는 두 가지의 사업을 『방과후 아동 플랜추진사업』으로 급부요강을 일원화시켜 도도부현, 지정도시, 중핵시에 급부하는데, 도도부현에 있어서도 정부에 준하는 급부요강 등을 일원화하여 국가, 시정촌과의 사무절차를 기본적으로 교육위원회가 일괄 처리하게 된다.

시정촌은 교육위원회와 복지부국의 구체적인 연계방책, 2009년도까지 『방과후 아동플랜추진사업』의 초등학교 구역단위의 실시계획 등을 포함시킨 사업계획책정에 노력의무가 있다.

④ 시정촌의 사업 실시

여유교실을 이용하거나 초등학교 내에서 실

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체육관, 보건실 등 학교시설의 탄력적인 활용에 노력하는 것으로 하지만 현재 공민관 혹은 아동관 등 초등학교 밖에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여유교실이 없는

표 2. 방과후 아동건강육성사업과 방과후 아동교실추진사업 내용 비교

사업별 관할기관	후생노동성	문부과학성	
	방과후 아동건강육성사업 (방과후 아동클럽)	방과후 아동교실추진사업	
취지 및 대상	맞벌이 가정의 아동(초등학교1학년부터 3학년)을 대상으로 방과후 등 적절한 놀이와 생활의 장소를 제공	모든 아이들이 안전·안심할 수 있는 장소에서 여러 활동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지역으로부터의 참여를 꾀하여 학습과 스포츠, 문화활동, 지역주민과의 교류활동 등을 추진	
근거	아동복지법 제6조2제2항 규정	없음	
예산액	186.9억엔(20,000개소 분)	77.7억엔(15,000개소 분)	
보조율	1/3(국가, 도도부현, 시정촌 각각부담) ※ 별도 보호자(이용료)부담 있음	1/3(국가, 도도부현, 시정촌 각각부담)	
보조 기본액 (2008년도)	운영비 481.9만엔 (아동36~70명 경우) 창설비 1,250만엔, 개수비 700만엔, 비품비 100만엔	운영비 문부과학대신이 인정한 액수 (집행상 제한없음) 비품비 문부과학대신이 인정한 액수 (집행상 제한없음)	
지도원 등	방과후 아동지도원(전임)을 배치	지역사회 어른, 퇴직교원 등을 안전관리인, 학습어드바이저 등을 배치	
실시장소	전용 공간을 필요시함		
	학교내(여유교실)	28.5%	특별히 정하지 않음
	학교내(전용시설)	19.8%	
	아동관	14.9%	
	전용시설	10.7%	
	기존공적시설	9.1%	
	그 외(민가, 보육소등)	17.0%	
→ 2008년5월 현재			
실시개소	17,583개소(2008년5월) (2007년도에 비해 898개소증가)	7,821개소(2008년도- 예정포함)	
이용 아동수	등록 아동수 약79만명(2008년5월) (2007년도에 비해 4.5만명 증가)	연간 참가 아동수 2,110만명 • 교실하나당 평균 참가 아동수 2,550명 • 1회참여 아동수 30.6명(2008년도)	
실시형태 등	원칙으로는 연간 250일수 이상 개소(여름방학등 장 기휴가나 필요에 따라 토요일도 실시)	연간 계속적이고 단발적으로 실시 (2008년도에는 1개소당 평균 126일)	

※ 2006년도 수치는 지역아동교실추진사업의 실시상황

출처: 후생노동성(2008.10.29) 『放課後児童クラブについて』
제16회 사회보장심의회 저출산대책 특별부회 일부 자료 일부본 필자 재정리

경우 등은 지역 사정에 맞추어 초등학교 밖에서 실시해도 상관없게 되어있다.

각 초등학교 단위마다 학교와 관계기관, 단체 등과의 연락조정, 활동 프로그램의 기획과 책정 등을 하는 코디네이터를 배치한다. 또 학습활동과 스포츠, 문화활동, 지역주민과의 교류활동 등 여러 가지 활동기회를 제공하고 방과후 아동 클럽대상 아동에 대해서는 현행수준과 동일한 서비스(적절한 지도원의 배치, 전용 공간 확보)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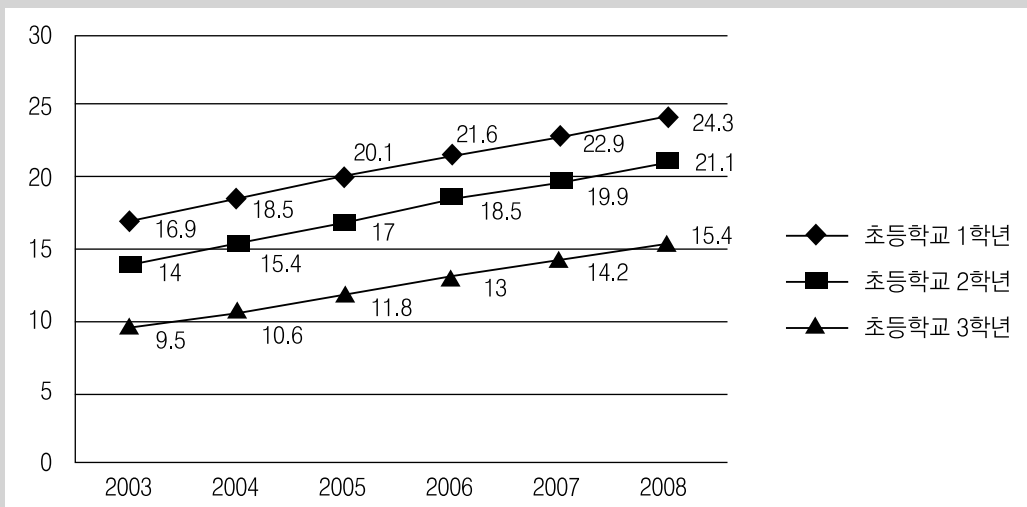
3. 방과후 아동대책의 최근 현황

방과후 아동대책에 관한 최근 시설수와 이용자수가 증가하고 있다. 방과후 아동건전육성사

업이 일본의 방과후 아동대책사업으로서 범정화 된 이후인 1998년부터 2008년까지의 변화를 보아도 방과후 아동클럽(방과후 아동건전육성사업)과 방과후 아동교실추진사업이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초등학교생들의 방과후 아동서비스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다. 물론 대기아동이 있지만 이용하는 아동 또한 많다(그림 4, 그림 5, 그림 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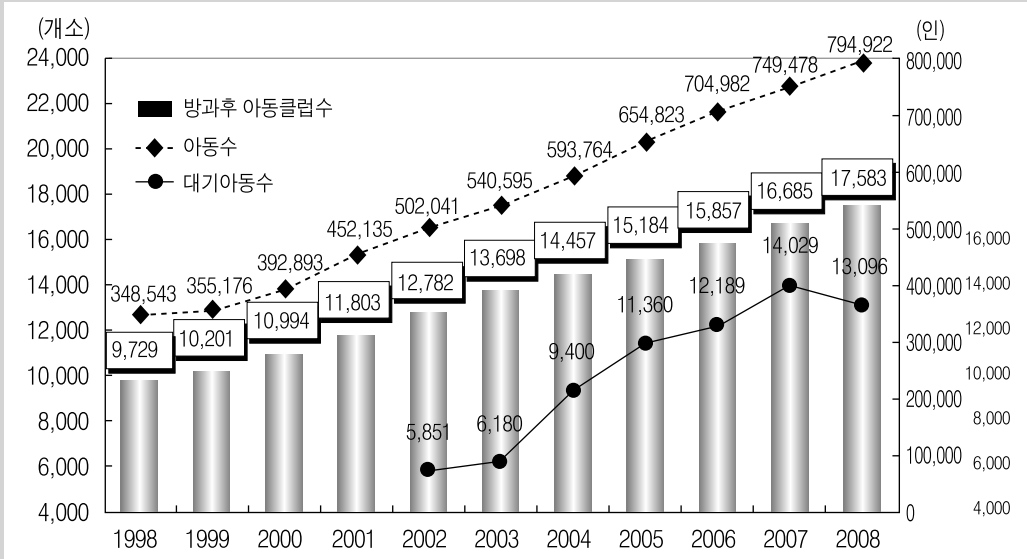
방과후 아동플랜 책정이후의 후생노동성·문부과학성 공동조사(2008.6.23발표)에 의하면 방과후 아동 클럽을 실시하고 있는 전국 14993(단위상 초등학교구역)곳이며 이에 비해 방과후 아동교실은 5707곳이 실시하고 있다. 두 사업 중 어떤 한 사업은 실시하고 있는 곳이 75%이다(그림 7). 두 사업 중 어떤 사업도 실시하지 않는 곳은 24%로 나타났다(표 3).

그림 4. 학년별 방과후 아동서비스 이용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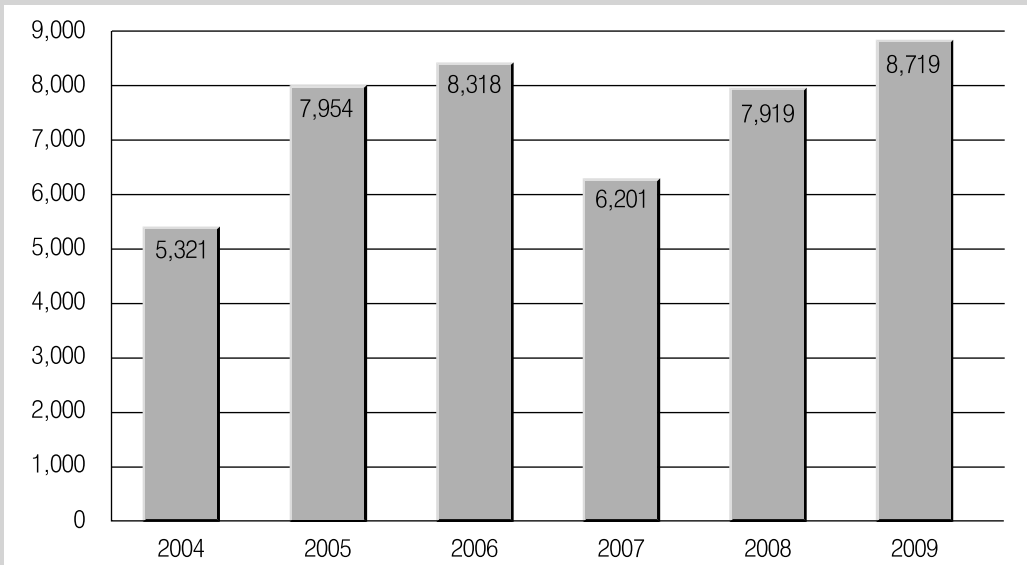
주: 자료는 후생노동성 육성환경과, 문부과학성 학교기본조사
출처: 池本美香(2009.6) 初等教育に関する調査研究プロジェクト「なぜ小學生の放課後対策なのか—日本の放課後対策の現状と課題」日本総研, Business&Economic Review p.5 재인용.

그림 5. 방과후 아동클럽(방과후 아동건전육성사업)의 전국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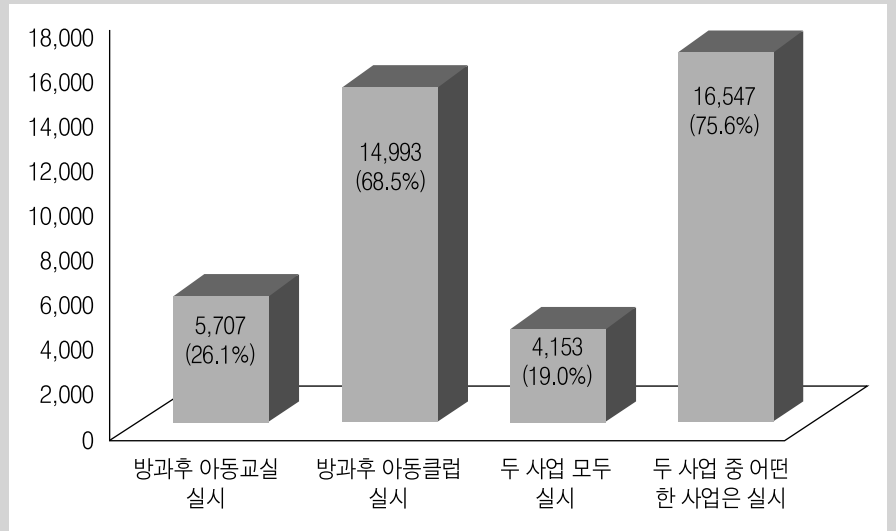
출처: 후생노동성(2008) 『放課後児童クラブについて』 자료.

그림 6. 방과후 아동교실의 전국추이



주: 2004년부터 2006년 자료는 지역아동교실추진사업 수, 2007년 이후는 방과후 아동교실 자료가 됨
출처: 방과후 아동플랜 홈페이지 <http://www.houkago-plan.go.jp/houkago/img/overview02.pdf>
일부자료 필자 재정리

그림 7. 방과후 아동대책 현황 (2007년12월1일 현재)



주: 표안의 수치(% 제외)는 초등학교 구역을 칭함.
 시도부현, 지정도시 및 중핵시로 부터 회답을 얻은 21,874 초등학교구역 모집단수임.
 출처: 후생노동성·문부과학성공동조사(2008.6.23발표) 『放課後子どもプラン實施状況調査』

표 3. 방과후 아동클럽과 방과후 아동교실 별 실시상황

		방과후 아동교실			합 계
		초등학교 내부 실시	초등학교 외부 실시	실시 안함	
방과후 아동클럽	초등학교 내부 실시	1,796 (8.2%)	430 (2.0%)	5,540 (25.3%)	7,766 (35.5%)
	초등학교 외부 실시	1,186 (5.4%)	741 (3.4%)	5,300 (24.2%)	7,227 (33.0%)
	실시 안함	1,174 (5.4%)	380 (1.7%)	5,327 (24.4%)	6,881 (31.5%)
합 계		4,156 (19.0%)	1,551 (7.1%)	16,157 (73.9%)	21,874 (100.0%)

주: 그래프 안의 수치(% 제외)는 초등학교 구역을 칭함.
 출처: 후생노동성·문부과학성공동조사(2008.6.23발표) 『放課後子どもプラン實施状況調査』 조사내용 필자 재정리

방과후 아동플랜을 실시하지 않는 이유로는, 지도원 등의 인원과 실시 장소확보의 어려움, 예산 확보의 어려움이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방과후 아동클럽과 방과후 아동교실추진사업에 대한 조정,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과후 사업을 실시하지 않는 이유의

그 밖의 의견을 살펴보면, 한 클럽에서 복수의 초등학교 구역을 맡고 있다거나 비슷한 사업을 시정촌 독자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란 의견이 있었다(그림 8).

방과후 아동플랜 사업실시의 과제로서 두 사업 간의 일원화(27%), 혹은 보조요건의 완화가 필요하다(23%)는 의견을 합친 50%는 두 사업의 관계성에 관한 과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9).

4. 나가는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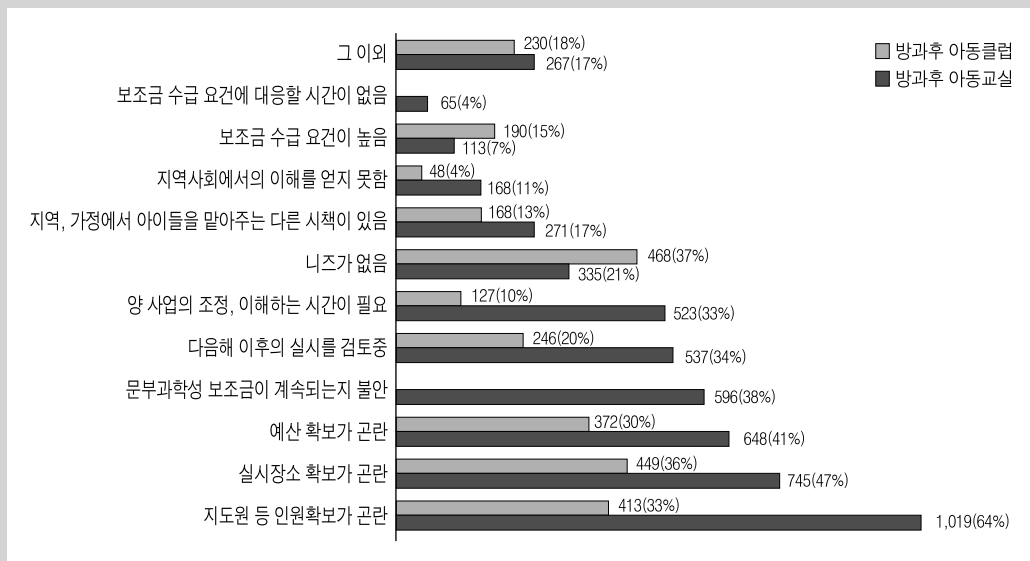
일본 방과후 아동대책은 오랫동안 교육영역과 사회보장·사회복지 영역이 서로 다른 별

개의 모습으로 제 각기 독자적으로 실천, 논의 되어 왔다. 최근 일본은 2007년 이후 '방과후 아동플랜'을 통해 체계화를 위해 노력하는 중이다.

2007년 이후 일본에서 방과후 아동대책의 체계화, 일원화가 요구되는 배경으로, ①방과후 아동대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 ②방과후 서비스를 기다리는 대기아동에 대한 조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 ③방과후 아이들의 안전한 장소(공간)의 확보가 요구되는 점, ④아동양육지원을 주목적으로 하는 방과후 아동건전육성사업과 방과후 아이들의 안전한 환경확보가 주목적인 방과후 아동교실사업의 연계강화를 생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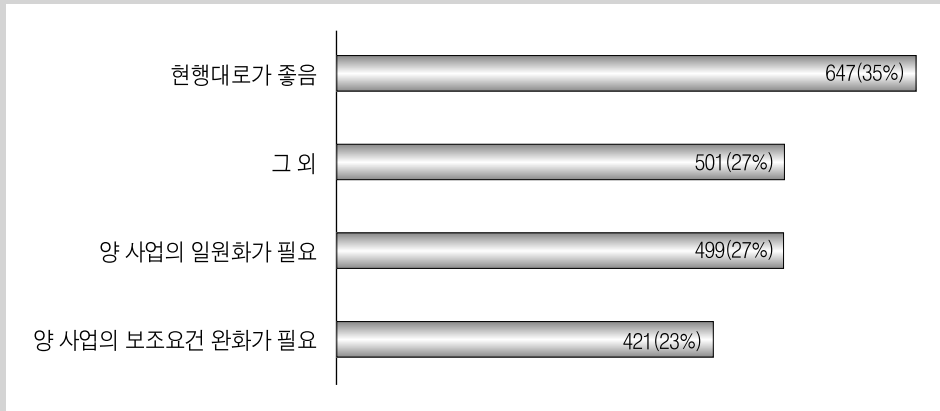
이는 강력한 사회적 요구에 대한 적극적인 대

그림 8. 방과후 사업별 미 실시 이유



출처: 후생노동성·문부과학성공동조사(2008.6.23발표)
『放課後子どもプラン実施状況調査』 조사내용 필자 재정리.

그림 9. 방과후 아동플랜 사업실시의 과제



출처: 후생노동성·문부과학성공동조사(2008.6.23) 『放課後子どもプラン実施状況調査』 조사내용 필자 재정리.

응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는 있으나 놓여진 과제 또한 많다.

각기 다른 모습의 방과후 아동건전육성사업(후생노동성)과 방과후 아동교실추진사업(문부과학성)의 방과후 서비스를 방과후 아동플랜 범주 안에 합쳐놓았으나 일원적이며 구체적인 모습은 제시하지 않았다. 또한 지역의 사정이나 특색을 활용한 움직임을 촉진시키는 정도에 머물고 있어 지금까지 목적이 다르게 움직여온 방과후 대책을 어떻게 관련지어 실시하는가와 그 형태에는 아직 모색단계라 하겠다.

방과후 아동대책은 여러 방면에서 실시되었고 최근 새롭게 개편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서비스를 기다리는 아동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서비스의 양적확충이 과제가 될 것이다. 한편 방과후 서비스에 대한 부모와 아이들 각각의 욕구 차이를 명확히 인식하고 체계화시켜 가는 서비스의 질적확충이 과제가 될 것이다.

한국과 일본의 방과후 아동대책은 다른 양상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형 방과후 아동대책 구축해 나아가는 데 있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문**